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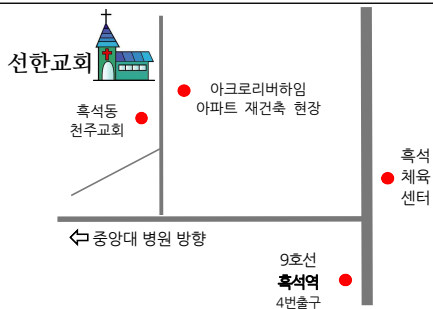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금요기도회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오후 1: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1:00
	*월삭새벽예배 6:00		에스더회 오후 1:00
셀 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선 교 사	양병순 (카자흐스탄)
	전임전도사 권 인 혁		이금주 (미국)
	협력전도사 오 호 남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관 리 장 로	손석규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김 대 희	500/50 교 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박 희 태		(2호) 세종 선한교회
	조 윤 익		신원섭 목사
	한 배 선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 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 5:16)

Walk By The Spirit

실 천 사 항 선교사의 삶 제자삼기(1인) 성경강론(1장)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암 송 구 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7)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35장 (통일찬송가 50장)	
교 독 문	교독문 45번(시편 103편)	
찬 양 과 경 배	370장 (통일찬송가 455장)	
예 배 기 도	유신웅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빌립보서 3:12~14	
설	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류은영 백영미 백미경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주를 위한 이곳에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말 씬 봉 독	친구, 영혼의 동반자 (사무엘상 19장)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 송 구 영 신 예 배	오늘 오후 11시에 송구영신예배가 있습니다. ※ 오후 6시부터 저녁(컵라면)이 제공됩니다. ※ 점심 식사 후 오후 1~3시, 저녁 9시~10:30분까지 신년 축복기도를 시작합니다. 미리 오셔서 기도제목과 헌금약정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운 영 위 원 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 : 1층 안디옥실	
3. 신 구 임 원 교 체 식	오늘, 31일(주일) 2부 예배시	
4. 진 급 수 료 식	오늘, 31일(주일) 2부 예배시 ※진급자 명단 유 아 부 : 김시연, 지은우 유초등부 : 이예인, 손은, 김서하, 윤진희 청소년부 : 김유근, 손진하, 이정민 청 년 부 : 이하나, 이우정	
5. 제 직 회	다음 주일(7일) 예배 후에 제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6. 2 0 1 8 년 달 력	준비된 달력을 가정별로 1부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용, 탁상용 둘 중 택일	
7. 매 일 성 경 강 론	주보에 성경 강론을 위한 참고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용과 참여를 바랍니다. (월~금 주5일)	
8. 예 배 준 비 안 내 및 정 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초,인천셀 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흑석셀 입니다.	

건축헌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025101-04-158561	예금주: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교회
입금 후 확인은 재정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집사 : 010-4333-6242)	

2017년 성경강론 범위						
12/31	1/1	1/2	1/3	1/4	1/5	1/6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1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당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	---

찬송 :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통 466장)

본문 : 마태복음 11장 28~30절

말씀 : 2017년의 마지막 날이자 주일입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정신없이 바쁜 일상에 쫓기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합니다. 그러고는 내년에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노동만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쉬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시대의 종교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지게 한 무거운 짐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가 가볍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볍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산산수훈만 봐도 그 무게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코 기독교는 가벼운 종교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설명은 마태복음 23장 4절을 읽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까닭은 바리새인들의 과도한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병든(마 9:12) 사람을 하찮은 존재로 무시하고, 심지어 안식일에도 배고프고 불구가 되고 귀신에 들려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뒀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없는 율법만 숭상했다는 겁니다. 종교지도자들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4~5)”고 말씀해주십니다. 이 구절은 바리새인들이 지게 만든 짐과 예수님의 멍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십니까. 이 약속의 시작은 먼저 일을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쉬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멍에를 지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서 쉬는 게 먼저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말입니다. 내년을 생각하며 분주히 일을 계획하기 앞서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쉬이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제목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빌3:12-14)

서론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바뀌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본론

1. 쫓대를 향하는 삶

(1) 쫓대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12) :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사명

(2)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13) : 간절한 소망으로 더욱 목표에 매진함

(3)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13) : 방해가 되는 것 제거함

2. 교훈

(1) 우리에게 상을 받는 날이 남아 있음을 기억하자.

(2) 쫓대를 향해 날마다 전진하자.

(3) 거룩한 목표를 위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자.

결론

쫓대를 향한 경주에 완주하여 하나님께 부름의 상을 받는 자리의 주인 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유신웅 장로	조윤익
헌 금 위 원	류은영 백영미 백미경	류은영 백영미 백미경
안 내	서초, 인천셀	흑석셀

매일 성경 강독 강적 골리앗 나약한 이스라엘 날짜 : 1월 1일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찬송가 545장/통일 찬송가 344장)
통독	사무엘상 17장
본문 내용	골리앗이란 이름의 블레셋 거인이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모욕을 퍼붓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헬에서 그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새는 형들에게 양식을 전해 주며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다윗에게 심부름시킵니다. 전장에 도착한 그때, 마침 골리앗이 다시 나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곁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따르는 영예가 무엇이라고 질문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열세를 지적하지만, 다윗은 과거에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경험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골리앗에게도 승리할 수 있음을 장담합니다. 사울의 군복과 칼을 거절한 다윗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하며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던진 물맷돌에 맞고 쓰러진 골리앗을 칼로 죽입니다. 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하고, 승리를 거둔 다윗은 사울 왕 앞으로 이끌려 나옵니다.
생각해보기	
1	다윗과 골리앗 (1) 하나님께서 기름부음 받은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부각시키는 장면 (2)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군을 모욕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함 (3)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존재: 키가 약 3m/머리에는 놋투구/몸에는 57kg 놋갑옷/창날 무게 약7kg (4) 이새의 세아들이 군대에 징집되어 전장에 가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이 있는 전쟁터로 오게 됨 (5) 골리앗에 의해 이스라엘이 모욕당하는 광경을 목도한 다윗은 크게 분노하였고 형제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요청하여 허락을 받은 후 오직 물매와 매끄러운 돌 다섯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가 골리앗을 격파함 (6)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 말아야 하며 자신이 세상에서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큰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핵심 단어	17:26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자에 대한 보상이 궁금하여 본문의 질문을 한 것이 아니다. 이미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내용을 들었다(25절). 그러므로 본문은 다윗이 보상의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준 무례한 자를 죽이는데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는가? 라는 의도의 반어적 표현이다. 즉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은 이스라엘에서 치욕을 제거하는 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앞장서 해야 될 일이며, 바로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출전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새해,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찬양과 기도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 주 예수 보다 더 (94장/통 102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큰 축복을 경험한 남윤정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2011년 1월 중국에서 파견 교사로 일하던 때였습니다. 거둬진 사업 실패로 실업자가 된 남편에 이어 자신이 3.5기 암 판정을 받던 순간, 중학생 아들과 딸의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1년을 기한으로 섬기던 중국에서의 중등부 교사직과 신우회 회장직을 중도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 성경암송대회에서 외운 산상수훈 말씀 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두려움과 걱정 대신에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맡게 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 복직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때 자매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재외국민학교에서는 이례 없이 병가를 허락해 주어 소정의 월급과 주거비를 받게 되었고, 두 자녀도 미션스쿨인 국제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수술에 앞서 8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으며, 3차 항암 주사를 맞을 때는 1주일 이상 물조차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자 결국 암을 완전히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탈북민과 남한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한사랑교회의 파송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합니다. 개인의 삶에 또는 가정이나 직장, 나라에 고난이 닥칠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나요?
말씀 나누기	잠언 3:1~12
묵상포인트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을 주셔서 계속 그 길로 가도록 격려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징계하셔서 나아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전 7:14).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이 허락하시는 모든 은총뿐만 아니라 징계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계명들은 무엇인가요?(1~10절)
적용하기	고난(시련)을 말씀으로 이겨 낸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오늘 본문 중에서 올해 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제 인생길의 모든 축복, 그리고 징계와 꾸지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로 받겠습니다.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뜻을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찬양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214장/통일 찬송가 349장)
통독	사무엘상 21장
본문 내용	눅 땅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간 다윗은 함께한 소년들을 위해 떡을 요구합니다. 제사장은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의 성결함을 확인하고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을 내어 줍니다. 그리고 창이나 칼을 구하는 다윗에게 아히멜렉은 옛날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내어 줍니다.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의 땅으로 도망합니다.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이 사울보다 뛰어난 다윗의 영향력에 대한 소문을 언급하자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미친 체하는 등, 생존을 위해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생각해보기	
1	다윗의 눅 및 가드 도피 (1) 다윗의 '1차 도피기'(삼상19:18-22:23) 중 먼저 눅땅으로 피신함 (2) 눅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하여 먹고 (골리앗)칼을 구해 무장함 (3)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의 목자장 도엑이 밀고할 것을 안 다윗은 블레셋의 한 성읍인 가드로 피신했고 그곳에서 미친자 행세를 한 후 겨우 위기를 넘기고 아둘람 굴로 도망함 (4) 사람에게 피하여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환난 날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시34편).
핵심 단어	21:14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 다윗의 행동을 보았던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한 발언이다. 직역하면 '보라 너희가 미친 한 남자를 보고 있다'이다. 아기스의 신하들에 의해서 '그 땅의 왕'으로 불렸던 다윗은 아기스에 의해서 '미친 남자'로 불리우게 되었다. 이것은 다윗의 전략이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더 이상 다윗은 사울을 능가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며, 아기스 왕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님을 미친 행동으로 입증된 것이다. 이러한 행동으로 다윗은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나 이는 분명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린 잘못된 결정으로 이러한 수처를 겪은 것을 볼 때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가 407장/통일 찬송가 465장)
통독	사무엘상 18장
본문 내용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에게 자신의 의복과 군장을 줍니다.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한 다윗에게 백성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자 사울은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내립니다.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하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일백 개를 요구합니다. 사울은 이 과정에서 다윗이 죽게 되기를 바랐으나 다윗은 블레셋 사람 이백을 죽이고 미갈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생각해보기	
1	사울의 다윗에 대한 시기 (1) 사울의 부름을 받아 왕 앞에 이르는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진실한 우정을 나눔 (2) 다윗이 요나단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 시작하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시도함 (3)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여 그를 외지의 부대장으로 임명하여 궁에서 축출하였고 자신의 딸과 혼인을 미끼로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보내어 죽이려고 음모를 꾸밈 (4)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궁정에서 쫓아낸 사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항하여 반역을 하거나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저 피하고 순응함. (5)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은 자기 앞에 닥치는 시련과 역경에 낙담하지 말고 어떠한 인간의 계획과 훼방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가야 한다.
핵심 단어	18:11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 다윗은 사울이 두 번이나 창을 던졌으나 두 번 다 피한 것이다. 사울이 창을 던지고 다시 창을 또 던졌다고 하는 것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그의 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두 번'이라는 용어는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왕 앞에서 즉시 도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최선을 다해 사울을 안위시키려 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태도에서도 다윗의 온유함과 인내가 매우 돋보인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친구, 영혼의 동반자		날짜 : 1월 3일	
찬양	만세 반석 열린 곳에 (찬송가 386장/통일 찬송가 439장)				
통독	사무엘상 19장				
본문 내용	사울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므로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고자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그동안의 전과와 충성심을 강조합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또다시 악신으로 고통 받는 사울을 위해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그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지만 다윗은 피하고 미갈의 도움을 받아 도망칩니다. 사울은 라마로 도피한 다윗을 잡고자 사자(使者)를 보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사울까지 모두 예언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기					
1	사울의 살해 시도와 보호받는 다윗 (1) 사울이 신하들에게 다윗 제거 명령을 내리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당분간 숨어 있도록 권함 (2) 사울이 사람을 보내 집에 피신해 있는 다윗을 죽이려 하자 미갈이 지혜롭게 행동하여 다윗을 구함 (3)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피하자 이를 알게 된 사울은 세 차례에 걸쳐 자객을 보내어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고 자신도 직접 라마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실패함 (4) 인간의 모든 악한 계획과 시도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는 헛될 수밖에 없으며 성도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안전한 보호 가운데 거하게 된다.				
핵심 단어	19:6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 본문은 여호와와 사심으로 사울이 맹세한 맹세의 내용이다. 이 용어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강한 맹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한편 그 전날까지는 다윗을 죽이려는 투지에 불타올랐던 사울이 요나단의 말에 의하여 순식간에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현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근본적으로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아 악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요나단의 권면이나 다윗의 연주를 들을 때면 잠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가도 또다시 악신의 지배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또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날짜 : 1월4일	
찬양	성자의 귀한 몸 (찬송가 216장/통일 찬송가 356장)				
통독	사무엘상 20장				
본문 내용	다윗은 라마나뭇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을 만납니다. 서로의 우정을 다시 확인한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월삭 식사 자리에서 사울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알아봐 줄 것을 요나단에게 부탁드립니다. 요나단은 이삼 일 내로 사울의 심중을 살펴서 다윗에 대한 의향을 알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안전에 대한 맹세를 한 다음 서로 간의 언약을 맺는데, 그것은 요나단의 집안에 인자를 베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참석해야 할 월삭의 다음 날까지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그의 행방을 묻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은 분노하고, 이로써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일 의지가 있음을 알고 노하여 식사 자리를 떠납니다. 작은 아이를 동반하고 들로 나간 요나단은 약속한 암호를 통해 다윗에게 사울에게서 떠날 것을 알립니다. 요나단이 함께 왔던 아이를 돌려보내자 다윗은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하고, 이들은 서로 이별의 통환을 표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을 빌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언약하며 서로의 길로 떠납니다.				
생각해보기					
1	다윗의 도피 생활 시작 (1) 다윗은 라마에서 나와 요나단을 찾아가 자신의 위급함을 알리고 사울의 본심이 무엇인지 파악해 알려주기를 요청함 (2) 다윗의 요청에 요나단은 흔쾌히 수락하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에게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요청함 (3) 요나단은 사울의 본심을 파악하고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린 뒤 서로 이별하고 다윗은 도피 생활을 시작함 (4) 참된 우정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바탕 위에서 맺어질 때 참된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인본적인 우정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돌변하게 된다.				
핵심 단어	20:31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다윗이 왕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에 살아 있는 한 요나단의 왕권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울의 지적이다. 그러나 사울의 이러한 염려는 사울의 왕위 폐위가 예고된 13:13,14과 연관하여 볼 때 이치에 맞지 않는다. 즉 과거 사울은 여호와와 명령을 버림으로 그 나라가 여호와와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로 넘어갈 것이라는 선언을 사무엘로부터 받은 바 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울은 왕권이 유지되지 못하는 까닭을 오직 요나단과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를 선언 받은바 있는 사울이 왕위 계승과 왕권 유지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니란 사실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사울의 인본주의적 생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